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마련

순창군 내년부터 지원 확대 특례보증 신설 등 조례 개정 거주·영업기간 3년→2년

순창군이 내년부터 소상공인과 창업자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순창군의회 본회의를 거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지원대상자의 거주·영업기간 요건을 1년 단축하고, 1년이상 거주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통한 용자 지원을 신설하는 것. 이로써 그동안 경제난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써 내년부터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27일 순창군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원안의

결하고 다음날 집행부로 이송했으며, 군은 전북도에 조례 입법상황보고 절차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12월 중순경 군보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기간과 영업기간 요건을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또 군은 담보능력이 없는 용자 희망자에게 '특례보증'을 해주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 자신 용자도 3천만원 한도내에서 용자는 물론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화장실·주방보수, 영업장 리모델링, 집기·장비 교체비 등 영업 환경개선이나 사업장 확장을 희망할 경우, 총사업비의 50%인 1,0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용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내에서 최장 3년까지 이자를 지원해 준다. 또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해 3,000만원 이내에서 용자를 받은 경우에도 이자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순창군 소상공인은 위의 3가지 지원 종류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계획은 내년초에 군 홈페이지(고시·공고란)와 읍면 산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보조금 1억5,000만원, 이자 지원금 4,000만원,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원(6억원까지 용자 가능)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황숙주 군수는 "국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농인, 군민이 다수 수혜를 받아 한번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살림살이 숨통트이다

지역현안·재난안전사업 등 잇따라 특교세 확보 성과 연말 추가확보시 35억 돌파

임실군이 민선 6기 들어 특별교부세를 두둑히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도 지역현안사업과 재난안전예방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함에 따라 군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32억원으로, 작년 이어 30억원 이상의 교부세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 민선 6기가 들어선 2014년에는 24억원에 불과했던 특교세는 지난 해(33억원)와 올해 연속 30억원을 넘어섰다. 군은 올 연말까지 특교세가 추가로 확보될 경우 3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임실 제2농공단지 진입로 확장사업을 시작으로, 9월에는 임실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비를 따내는 등 주민안전과 복지에 필요한 9개 사업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지역현안사업인 귀농 플랫폼 조성사업(5억원)과 재난안전예방사업인 용문교 소교량 재가설 공사사업(3억원) 등 8억원의 특교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하는 성

과를 이뤄냈다. 귀농 플랫폼 조성사업은 예비 귀농인에게 임시거주 및 영농실습 훈련농장 등 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농촌 인력난 해소와 함께 농촌인력 및 귀농인들의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문교 소교량은 노후되고 교각이 침식돼 붕괴위험이 매우 높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컸다. 그러나 이번 특교세 확보로 노후교량을 재가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 예방 등 주민들의 생명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같은 특교세 확보 성과는 심 민군수와 지역구인 이용호 국회의원의 유기적인 협력 플레이가 한 몫 했다는 평이다. 심 군수는 이 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심 민 군수는 "작년과 올해에 기대 이상의 특교세를 확보하게 되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숙원사업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안사업에 대한 특교세 등 국비확보를 위해 발로 직접 뛰는 세일즈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재난안전 특교세 11억 확보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소규모 위험시설지구 및 보행안전도로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이환주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이 협력하여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를 수차례 방문해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루어진 성과로, 재난안전수요인 주생 내동마을 소교량정비(L=30m) 4억원, 보절진기앞뜰 세천정비(L=600m) 4억원과 행정안전수요인 롯데마트 남원리조트간 도로정비(L=1,300m) 3억원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의 안전예방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본 사업은 2018년 초부터 사업실시계획과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공사를 시행하고 우기 전 사업완료 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201가구 수혜와 주택 88동, 농경지 33ha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시가지 간선도로 보행자친화성 인도가 확보되어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도심 생활환경개선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남원시에서는 행정행정을 통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해위험지구를 적극 발굴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 갈 계획으로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건강증진센터 이용자 '엄지 척'

100명에 설문조사 결과 항목별 만족도 높아



순창건강증진센터에서 군민들이 다양한 헬스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고 있다.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순창건강증진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은 지난 10월 23일부터 한 달동안 건강증진센터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내용은 직원의 친절도, 운동 후 체력변화, 1일 평균 이용시간, 이용시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등 13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이용자 연령은 50세 이상이 58%로 가장 높고, 이용자의 82%가 순창읍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센터 이용자 중 2년 이상 이용자는 52%, 1년이상 ~ 2년미만 이용자는 18%, 70% 이상이 1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의 친절도에 있어서는 매우 친절하다 63%, 친절하다가 28%, 대부분 91%에서 친절하다 라고 응답했으며, 실제 친절도는 이용자 89%가 친절하다, 보통이다 9%, 친절하지 않다가 2%로 나타났다. 주로 많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로는

런닝머신 68%, 근력운동기구, 복합운동기구, 사이클 순으로 대답했으며, 이용하는 주목적으로는 체력강화 64%, 근력강화, 체중감량 순으로 응답했다. 또 직원으로부터 운동기구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들었으며, 건강증진센터에서 꾸준히 운동한 후 체력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97%에 이르는 등 이용자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영관 보건의료원은 "조사결과에 따른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노후된 운동기구는 교체하고 허리·근력운동기구 등은 신규로 구입해서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건강증진센터는 지난 2006년에 개소해 연간 5만3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런닝머신과 근력운동기구 등 61대의 다양한 헬스 운동기구를 비치해 순창군민 건강 증진 향상과 삶의 활력증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10억여원 투입 감성지구 새뜰마을 준공

임실군은 지난 8일 감성지구 새뜰마을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심 민 군수와 문영두 의장, 한완수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성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새뜰마을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안전과 위생 등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감성마을은 2015년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까지 3년간 10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노후주택과 경관 및

환경, 안전위험 시설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과 주차장을 조성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역량강화사업도 전개해 왔다. 한편 심 민 군수는 "마을 곳곳에 상존했던 위험하고 취약한 요소들이 우선 제거되고 주민안전 확보와 경관이 개선되어 무척 기쁘다"며, "사업 추진을 통해 보여 준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마중물로 다양한 행복마을사업도 전개하여 보다 생기 넘치는 마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벼 재배 농업인에 농작업비 지급 남원시, 고령 영세규모 대상

남원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317가구에 1억1612만3000원의 농작업비를 지급하였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시범사업은 만 71세(1946년생) 이상이면 영세규모(1000㎡ 이상 ~ 4000㎡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게 하여 그동안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1세 이상 농업인으로 벼 재배면적이 1000㎡ 이상 ~ 4000㎡이하이며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확인을 거쳐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경운, 정식,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당 150원으로 농가는 15만원 ~ 6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농업의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타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며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은 주야간 일조시간이 크고 일조시간이 타 지역보다 많으며 숙기의 온도가 높아
임실고추는 알싸하게 매우면서 달콤한 맛과 고운 빛깔을 띄고 있습니다.
세척부터 유통까지 임실고추종합기금센터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은 명품 임실고추를 생산합니다.
www.imsilin.kr

매콤하고 달콤한 감칠맛
임실 고추





임실고추종합기금센터 세척고추 고춧가루

